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531
----------	------

발의연월일 : 2014. 7. 16.
발의인 : 김재국, 김동규, 김동수, 김재택, 김진희,
나정숙, 박영근, 박은영, 성준모, 손관수,
송바우나, 신성철, 유화, 윤석진, 윤태현,
이민근, 이상숙, 전준호, 정승현, 주미희,
홍순복

□ 주 문

○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국가적 재난사건인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학생 등 다수의 안전시민이 희생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여 안전시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음.

○ 안전시민회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건의함.

□ 제안이유

○ 지난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범포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중 293명이 희생되고 11명이 실종상태임.

○ 그 중 안전시민 탑승자가 342명으로 단원고 학생 245명과 교사 10명, 일반인 1명이 희생되었으며 아직도 7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전지역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음.

○ 이로 인해, 피해당사자와 가족, 단원고 학생과 안전시민 등 지역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며, 안전지역 경제는 급속히 침체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안전시민회의에서는 국가적 재난사건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전시의 피해시민과 침체된 안전시 회복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촉구 건의함.

□ 건 의 안 : 덧붙임

□ 이 중 처 : 국회, 안전행정부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바다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우리 안전지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시민 342명을 포함하여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여 172명이 구조되고 293명이 희생되었으며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참담하고 비통하기 그 지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92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슬픔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뎌내며 아픈 상처의 치유를 넘어 새물결게 거듭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동과 실천을 보여준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우리 안전시민들도 온 국민과 더불어 사고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진도체육관과 폐목항, 합동분향소와 도시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온정의 손길로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대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와 검거할 동도 부진하며, 국회의 국정조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도 피해자가 죽음이 나서서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민 35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였는데,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설마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가 피해자가 죽음이 폭염 속에서 국회의사당 현관과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새생들이 국회를 향해 도보행진을 하며 밤을 새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지역도 온 시민의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도시

교육정보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5.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등학교 등 안전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수업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움 실정으로 피해학생의 대학진학 특별전형 확대와 및 피해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선립하고 지속공여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합니다.

4. 재난특별지역인 안전사가 지역공동체 위기와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를

추모사업은 지원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3.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 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 고,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물 촉구 건의합니다.

1. 사고해역의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 등 어려운 현지여건으로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으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우선급 할 수 있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중앙부처에 촉구 건의합니다.

를 약속하며,

이에 안전사의회는 국가적 재난사건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전사의 회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시민 최우선의 자세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 의 제·개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의 활력이 가라앉고 문목상권과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단원고등학교를 비롯한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 윤옥

2014. 7. 16.

다국자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9.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 만물가에 충력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8.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종체적 부실로 인해 최악의 해산 참사로 커진 이번 사고가

차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밝혀내고, 불법행위자 전원과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7.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사고원인과 진상을 명명백백

바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지역인 안산시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재난특별